

안티노리 와이너리

Antinori Winery _ Archea Associati, Italy, Florence

글. 이지현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피렌체의 건축사 그룹 Archea Associates에 의해 설계된 Antinori 포도주 양조장 건물이다. Antinori 와인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피렌체 와인의 역사를 대표하는 와인 중에 하나로써 이 와인 제조회사의 역사는 1385년으로까지 올라간다. 이들이 와이너리를 계획한 땅은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에 위치한 Chianti의 부드러운 언덕이었으며 사이트 역시 중간중간 vinyards-포도밭-으로 덮여있었다.

건축주는 Chianti에 와인을 생산하고 숙성시키고 저장하고, 생산과정을 Museum을 통해 전시하고, 고객들에게 시음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판매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건축사는 설계 당시, 이러한 장소를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거한 기능을 하는 건물 자체를 뛰어넘어서, 작게는 Chianti, 나아가서는 피렌체의 역사적, 사회적 가치 표현뿐만 아니라, 피렌체가 감내했던 몇세기의 땅의 역사를 담아 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인 와인판매는, 현재 세계적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 그들이 이 땅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땅을 다루는 문화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땅의 해석에서 시작된 와이너리의 설계는 자연스럽게 땅으로부터 건물이 분리된 오브제로서가 아니라, 땅을 끌어안을 수 있는, 땅으로부터 소생된 그 무언가로써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건축은 ‘Architettura Sotteranea’-*subterranean architecture*/이탈리아어로 지하 건축을 의미한다. 고대 역사적으로 지하건축은 자연스럽게 생성된 동굴에서 인간이 거주했던 것을 포함하여 여러 문명에서 돌을 파내어 변화무쌍한 기후에서 살아남는 데에 큰 디딤돌로써 자리한다-의 형식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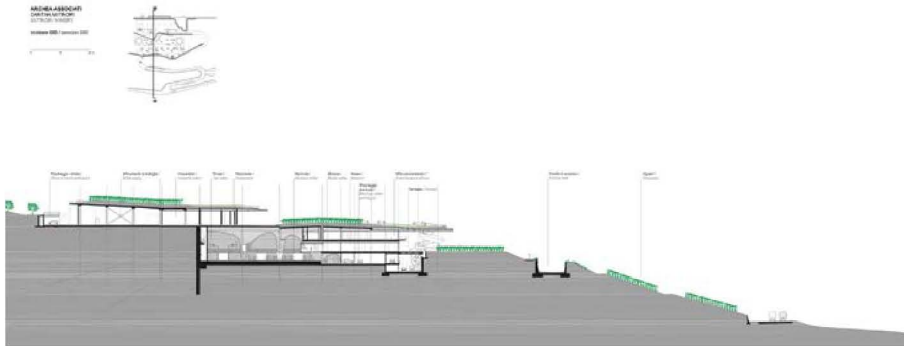
Bird Eye View



View towards Vinyard 01

차를 타고 멀리서 보면 포도밭이 땅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데 그 땅에 두 개의 선을 그으면서 이들의 건축물은 우리에게 일종의 사인으로서 이야기를 건넨다. 점차 그곳으로 다가가 보면 멀리서 느꼈던 선과는 꽤 다른 스케일감으로 건물을 느낄 수 있는데, 육중한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곡선으로 형성된 벽체가 점차 땅속으로 숨겨져 있는 건물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건물 전체는 주 출입구가 있는 주차장에 이어, 아래층의 와인을 보관하고 숙성하는 등의 ‘생산하는 공간’과,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박물관 및 비디오실 등이 있는 위층의 ‘소통하는 공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와인 건축 여정의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생산된 와인들을 실제로 시음하며 토스카나 지방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바와 레스토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면도

건물의 단면을 보면 특히, 와인을 숙성시키거나 보관하는 공간은 빛이 들지 않아야 하고 온도를 적정하게 일정유지 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땅과 가장 밀접한 곳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중층으로 되어 있고 기둥이 공간의 중간에 배치됨이 없이 큰 공간을 연속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와인을 보관하던 지하층의 건축물 구조를 연상시키는 Vault-동근 천장구조: 아치 형태를 이루면서 이를 이루는 전체적인 부재가 압축력을 받게 하여 꽤 높고 스패이 긴 건물들에 많이 쓰였다-로써 천장 및 벽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그 공간이 담을 와인 배럴을 미리 머금고 있는 것 같다. 지하에 위치하면서 높고 기다란 비율과 건물의 공간감은 이 피렌체라는 땅과 더 깊숙이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외의 공간들, 주 출입구 공간, 레스토랑이나 다목적공간, 휴식공간들은 땅과 땅 사이를 끊어놓은 듯한 그 틈새에서 슬며시 빛을 가지고 온다. 그 사이사이에 약간은 육중하게 Rusted Steel-녹슬게 하는 철판-으로 마감된 원형 계단들이 놓여 있어 층과 층 사이의 동선을 잇고 있다.

전체적인 재료나 마감재의 사용은 모던하면서도 그 지형의 역사에 대한 반영과 연관성이



View towards Vinyard 02



Vertical Connection



View towards Vinyard 03



Wine cellar

느껴진다. 대부분의 구체는 땅을 파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인데 이 구체를 다른 마감으로 덮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스펀드럴 부분과 계단으로 이어지는 여러 부자재들은 산화 철판을 사용해서 와인 발의 붉은 색깔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건물의 안쪽 내부실로 들어가면 와인 저장고 등의 공간은 중층 이상의 높은 천정고를 확보했고 동근천장-Vault-으로써 역사적 연속성을 꾀하였기 때문에, 흠을 구워서 만드는 테라코타로 바닥, 벽 및 천장을 마감하였다.

이렇게 안티노리 와이너리는 최소한의 것만을 표현하는 모던의 정신과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Chianti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